'2008 청주시자랑스러운건설인상'수상

오 선 교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R&D 투자로 인한 기술 개발 실적이 수주' 효자노릇 '하고 있어"

최근 설계 · 감리 전문 업체인 청주의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는 조달청이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1단계 정부청사 책임감리 용역을 단독으로 수주하였다. 국내의 쟁쟁한 감리업체들을 제치고 행정도시에 들어설 첫 공공청사의 책임감리를 맡은 만큼 그 의미는 작지 않았다. 후속 건물들의 감리 수주 경쟁에서 실적축적으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주 금액이 25억여 원으로 책임감리 용역 비용으로는 규모가 큰 이 사업의 주인을 가리는 데는 R&D 실적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원 평가의 경우 대부분 만점을 받아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회사 평가에서는 R&D 실적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차이가 사업자 선정을 가리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오선교 회장은 " 행정도시 공공청사 책임감리는 꼭 하고 싶었던 용역사업이었다 " 며 " 10년 전부터 연구소를 설립해 기술개발에 진력해 온 보람을 크게 느낀다 " 고 말했다.

오선교 회장이 지난달 초 ' 2008 청주시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 을 수상하였다. 그는 슈퍼리에등 건설신기술을 개발해 26개 공사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품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상은 청주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제정한 상이다.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1975년 건축설계사무소로 시작하여 현재는 설계, 종합감리, 엔지니어링, 안전진단, 건설부문 등에서 500명의 기술자가 활동하는 건설종합엔지니어링 회사로 성장하였다.

특히, IMF 사태로 모든 기업들이 연구개발부문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풍토에서 오히려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신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신기술 3건, 건설특허 2건, 실용신안 14건 등의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 IMF 당시 정부가 향후 입찰심사에 R&D 투자실적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그에 맞추어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제는 PQ 심사에서 R&D 실적이 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R&D 실적이 ' 수주 효자노릇 ' 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

오선교 회장은 이들 신기술 가운데 특히 슈퍼리에공법이 회사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건설 신기술 제353호인 슈퍼리에 공법은 정확히 말하면 ' 백설탕액, PEO 증점제, AE제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당류계 초지연제 개발 및 이의 응결 시간 차를 활용한 수평분할타설 건축기초 매트콘크리트 수화열조정공법 ' 이다. 오선교 회장은 이 공법이 상하부 타설 콘크리트 간의 접합부를 없애고, 공기도 단축시키면서, 수화열 구배를 완만하게 하여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신기술이 건축구조물의 기초 구조가 매스콘크리트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국내외적으로 적용 사례가 없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강조하였다.

오선교 회장은 기술 개발을 통한 성장과 함께 인간 존중을 기업 경영의 양축으로 삼고 있다. ' 경영이 곧 사람관리 ' 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나아가 그는 ' 실속 있도록 힘써 실행한다 ' 라는 뜻의 무실역행(務實力行)이란 생활 철학도 경영에 도입했다. ' 할 수 있다 ' 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무실 벽에 씌어진 ' Yes, We can do it ' 이란 구호가 그의 생각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